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도난 문화재를 찾읍시다** 경철청 후원

“장물인줄 몰랐다” 하면 法도 ‘물방망이’ ‘선의 취득 배제’ 규정 만들자

사찰문화재 보존 토론회서 주장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월 12년 전 충남 부여군 무량사 주지실에서 훔친 지방유형문화재(충남도 100회)인 관음보살좌상 등 불상 3점을 공소시효가 지난 뒤 팔려 한 김모씨에 대해 문화재보호법 위반(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씨가 “12년 전 장물인 줄 모르고 구입했다”는 주장을 펴 처벌에 어려움을 겪자 ‘은닉’ 혐의를 적용했던 것.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계속 ‘선의취득’을 주장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할 경우 도난 당한 불상은 되찾을 수 없게 된다.

2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사찰문화재 보존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사찰문화재의 도난방지를 위해 민법상 인정되고 있는 ‘선의취득’ 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문화재보호법에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사찰문화재의 도난방지 및 보존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박용대 변호사는 “문화재 도난방지 및 사후 도난문화재 발견시 이를 원소유자에게 신속하게 반환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도난방지를 위해 ‘선의 취득배제’ 규정을 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지난해 조계종에서 도난문화재 반환을 촉구하기 위해 총무원 청사에 내건 현수막.

“처벌규정 강화 못지않게 유통억제 현실적 대책”

지정문화재에 한하여 선의취득을 배제하는 규정을 문화재보호법에 신설하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현재 문화재보호법에 강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도 문화재 도난사건이 줄지 않는 것은 처벌의 위협보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문화재 도난방지를 위해서는 처벌규정 강화보다 도난문화재의 유통을 억제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도난 문화재인 것을 알면서도 고가에 매입하는 것은 도난문화재가 몇 단계의 유통을 거치면서 공소시효가 지난 후에는 소유한 사람이 적법한 소유권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선의취득제도의 허점을 지적했다.

도난문화재인 사실을 모르고 양수한 선의의 양수자가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박 변호사는 “중산문화재 유통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중산문화재를 매수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문화재의 가치와 출처, 도난여부 등을 파악하기가 용이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일축했다.

권형진 기자 jinry@buddhapia.com

‘복 얻기’서 ‘복 짓기’로

광동여고 유동호 법사
“기복불교 벗어나자”
‘불교평론’에 기고

한국불교의 대표적 병폐로 지적되면서도 관행으로 굳어져 제도화한 때문에 본격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되지 않았던 ‘기복불교’를 정면으로 비판한 글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유동호 광동여자고등학교 교법사는 최근 나온 주간지 <불교평론> 여름호 특집에서 “오늘날 불교계에서 해아릴 수 없을 만큼 행해지는 각종 제사 의례와 그것을 진행하는 승려의 모습은 부처님 당시 비판했던 브라만교의 제사만능주의를 방불케 한다”고 비판하며 바람직한 불교신행을 위해서는 “복을 받을 만한 선업은 행하지 않고서 결과만 바라는 기복에서, 실제로 복을 짓는 작복(作福)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유 씨는 “기복주의를 넘어 공덕주의로”란 글에서 “복을 구하고자 하면 복을 구하는 행을 해야 하는데도 복을 구하는 행에 빠져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며 한국불교의 모습을 “뺨을 잡고자 하면 뺨의 머리를 잡아야 함에도 꼬리나 허리를 잡

아 오히려 화를 당하는 꼴”에 비유했다. 이어 유 씨는 “불교신행의 기복화는 수행자·교화자인 승려를 사제로 전락시키고, 동일한 가르침을 앞뒤에서 함께 뒤아야 할 승·속이 서로 다른 차원의 행동 양식을 굳혀가게 하는 승·속의 괴리를 초래한다. 승속의 괴리는 다시 신행의 기복화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기복불교를 “한국불교의 제반 문제점이 집약적으로 돌출된 현상”이라고 강도를 높였다.

기복불교의 한계를 탈피하여 불교신행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유 씨는 초기불교의 경전인 <아함경>의 교설을 부처님의 근본교설로 인식하여 뒤아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씨

는 “<아함경>은 무속적·사제(而祭的)적 신행을 배제하고 승·속이 함께 불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점진적인 수행 체계를 설하고 있으며, 이는 미신적인 기복불교와 승·속의 괴리 현상을 타개할 수 있는 모델을 제공해 준다”고 말했다. 또 유 씨는 “불교에서 말하는 복은 현세의 즐거움과 내세의 인락은 물론 열반의 성취를 기원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며 “출가 수행자 못지 않은 수많은 재가의 제자들이 등장해 세간적인 복은 물론 출세간적인 깨달음까지 당당히 성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아함경>이야말로 재가 불자들에게 신행의 차원을 고양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형진 기자



◇바람직한 신행을 위해서는 기복불교에서 벗어나 공덕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불교관련 천연기념물 ‘11건’

경북 57건 ‘최다’
문화재청 ‘...보존관리’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의 정이 품송, 제주도 용암동굴, 밀양 얼음굴, 황새, 두루미... 천연기념물 하면 가장 쉽게 떠올리는 것들이다. 그렇다면 천연기념물은 어떤 이유로 지정되며 이 가운데 불교와 관련된 것은 얼마나 될까? 천연기념물이 가장 많은 시·도는?

역사, 문화, 자연사 및 과학 등의 자료로써 가치를 지닌 천연기념물·명승 328건을 수록한 <천연기념물·명승 보존관리>가 최근 문화재청에서 나왔다.

우선 불교와 관련해서는 사찰장건설화가 갖든 송광사 곱향나무 쌍향수(사진) 등 모두 11건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다. 불교와 관련이 없어도 유용식물이기 때문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도 있다. 천연 광덕사 호도나무, 진안 은수사의 청실배나무가 여기에 속한다. 정조와 사도세자의 전설을 담은 용주사 회양나무, 정암사의 열목어 서식지도 천연기념물이고, 금산 보석사 은행나무, 운문사 처진 소나무, 범어사 등나무 군생지 역시 천연기념물이다.

천연기념물이 가장 많은 시·도는 경상북도(57건)고, 전라남도(44건) 경상남도(34건)가 그 뒤를 잇는다. 분야별로는 식물 219건으로 가장 많고 동물 63건, 지질·광물 23건, 천연보호구역이 10건이다. 식물 가운데는 은행나무가 소나무(18건)를 제치고 가장 많지만(21건), 백송(7건)과 반송(5건) 곰솔(6건) 처진 소



나무(3건)까지 합하면 역시 소나무가 가장 많이 지정돼 있다. 이밖에 보존관리 지침 등을 간략하게 실었으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이 병들거나 조난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시·도 및 시·군·구별로 수록했다.

권형진 기자



“임진강 유역 불교유적 70점”

경기도박물관 학술보고서

북한의 두류산에서 시작해 경기도 파주시에서 한강으로 흘러드는 임진강은 삼국시대부터 군사적 요충지였다. 지금도 포연이 재가시 않은 이곳엔 그러나 성곽 같은 군사시설만 남아 있는 건 아니다. 연천전곡리 구석기 유적 등 고고유적에서 파주 용미리 석불입상(보물 제93호·사진) 등 불교유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적이 즐비하다.

경기도박물관에서 최근 펴낸 <임진강>은 아직까지 한 번도 종합적인 조사가 없었던 이 지역에 대한 첫 학술보고서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절과 절터 25곳에서 고려~조선시대에 이르는 석불 9점, 부도 10점과 부도비 2점, 석탑 1점과 석등 2점 등 모두 33점의 불교유적을 확인했다. 이전의 지표조사 보고서에는 거의 다루지 않았던 불화 12점도 상세하게 보고하고 있다. 권형진 기자

‘초기불교 수행법 연구’

보조사사람 17~19일 워크숍

보조사사람연구원은 17~19일 남양주 봉인사에서 초기불교의 수행을 주제로 제1차 수련 워크숍을 연다. 팔리어와 한문으로 된 초기불교의 경전에서는 초기불교 수행법인 지관과 사선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원전을 중심으로 강독하고 토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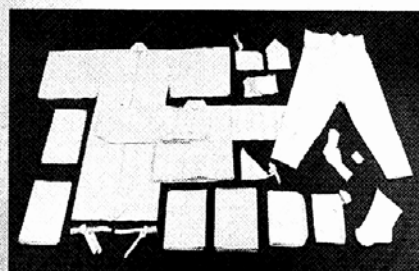
초기불교의 수행법을 실제로 해봄으로써 현재의 수행법과 어떻게 다른지 직접 느낄 수 있는 체험 시간도 함께 갖는다. 제2차 수련 워크숍은 간화선을 주제로 겨울방학 중 열릴 예정이다. 참가비 6만원. 02-733-5311

* 기사면적 '고승 다시 보기' 쉽니다.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윤년수의」

좋은 수의를 장만하는 일이야말로 진정된 효의 실천입니다.

수의(壽衣)중에서도 윤년수의(閏年壽衣)는 탈이 없고 손이 없어 부모님의 무병장수(無病長壽)를 기원(起源)하는 최상(最上)의 수의(壽衣)로 손꼽힙니다.



남자 - 도포, 두루마기, 저고리, 속저고리, 속바지, 바지, 이불, 오장례, 악수, 버선, 도포근, 베개, 허리띠, 덧넉, 오방, 면모, 행전, 턱받이, 연포 (총 20종)

여자 - 원삼, 저고리, 속저고리, 속바지, 바지, 속치마, 치마, 이불, 오장례, 베개, 완삼띠, 면모, 악수, 버선, 오방, 턱받이, 연포 (총 18종)



▲ 오동나무 박스

▲ 향나무 박스

불자님들을 위한 특별한 기회 - 놓치지 마십시오.

진정한 윤년수의는 윤달에 만들어진 수의입니다.

품명	구성	재질	백화점가격	불자님가격	특별혜택
삼베	남 20종, 여 18종	삼베의 불순물을 3회 이상 제거한 후 제조된 순수 삼베 100% 제품	600,000원	550,000원	6개월 무이자, 오동나무 박스 보관함
삼베	남 20종, 여 18종	삼베의 불순물을 3회 이상 제거한 후 장삼유로 제조된 순수 삼베 100% 제품	900,000원	798,000원	6개월 무이자, 오동나무 박스 보관함
삼베	특품	남 20종, 여 18종 안동 삼베에서 개발한 대마 100% 원사 수의로 삼베의 불순물을 제거한 후 안동도 7세를 기준으로 제조된 순수 삼베 100% 제품	1,320,000원	1,150,000원	10개월 무이자, 향나무 박스 보관함, 삼베침구 세트증정
수직	특품	남 20종, 여 18종 안동 삼베에서 개발한 대마 100% 원사를 베물로 제작한 고급 수직제품으로 안동도 7세를 기준으로 제조된 순수 삼베 제품	1,870,000원	1,450,000원	10개월 무이자, 향나무 박스 보관함, 삼베침구 세트증정
안동포	7세	남 20종, 여 18종 순수 삼베 자연사 100%를 재래식으로 제조하여 자연염료인 치자 염료로 염색된 최상의 상품	4,200,000원	3,950,000원	10개월 무이자, 향나무 박스 보관함, 삼베침구 세트증정

■ 뱃배 주문시 요금이 10% 추가 됩니다. ■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에 정확히 배달하여 드립니다.



株式会社 安東삼베
ANDONG HEMP CLOTH CO., LTD.

본사/공장: 경북 안동시 서후면 저전리 439-1
서울영업부: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70-8호 혜성빌딩 1F
TEL. 02.586.2544 영업부: 02.586.2553-5

무료상담전화 080.588.2544